폭염이 기승을 부린 9일 완도군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완도=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피서 절정 '인산인해'

전남 해수욕장 깨끗해졌다

백사장·취수대 등 개선 … 주민들 쓰레기 봉투 나눠주며 청소

바가지 요금·주차난은 '옥의 티'

주말과 휴일인 8일과 9일, 장마전선이 물러가고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전남지역 주요 해수욕장에는 막바지 피서를 즐기려는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특히 올해는 백사장과 개펄 등 주변 환경이 예년에 비해 크게 개선되면서 국내 피서객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바가지 요금과 주차난 등은 '옥의 티'로 지적됐고, 일부 피서객들의 몰지각한 행위도 눈에 띄었다.

9일 오후 5시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해수욕장 백사장 텐트 밀집지역. 50여 개의 텐트가 발 디딜 틈 없이 빼곡했다. 텐트 입구마다 음료수·종이·플라스틱·유리병 등이 적힌 그물망이 눈에 띄었다. 쓰레기 분리수거함이었다.

텐트촌은 물론, 백사장·취사대·화장실 등은 비교적 깨끗했다. 마을 주민 등 20여 명이 하루 세 번꼴로 주변 청소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피서객들에게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직접 나눠 주며 불법 투기를 예방하고 있다. 하루 평균 쓰레기 발생량은 4t 가량. 직접 분리수거한 뒤 위탁처리하고 있다.

해수욕장 주변도 깨끗했다. 하루 평균 9천여명의 피서객이 몰리면서 외국인 관광객도 눈에 띄게 늘었다. 이날 송호리를 찾은 외국인은 50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 LA에서 왔다는 제임스(34)씨는 "5년 전에도 한 번 왔는데, 예전에 비해 주변 환경이 너무 깨끗해진 것 같다"며 "피서객들의 의식 수준이 많이 향상된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1시30분 보성군 율포면 율포 해수욕장. 쓰레기장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눈에 띄었다. 표지판을 따라가자 재활용품과 음식물 쓰레기 등이 적힌 문구 아래 수거된 쓰레기가 가득 차 있었다.

해수욕장 주변은 비교적 깨끗했다. 샤워장·취사대·식수대도 따로 구분, 설치돼 있었다. 모래 사장 곳곳에 쓰레기가 널부러져 있던 예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주민 김성근(54)씨는 "하루 평균 3t가량 쓰레기가 배출되는데, 주민들이 매일 순찰을 돌면서 쓰레기를 치우기 때문에 예전처럼 쓰레기가 가득 쌓인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하지만 바가지 요금은 여전했다. 보성 율포 해수욕장 주변의 하루 민박 요금은 2인 기준 7만~9만원 선. 군청에서 권장하는 요금은 3만원이다.

주차난도 심각했다. 완도군 신지면 명사십리의 경우 주차 가능 대수는 2천여 대. 하지만 하루 평균 3만 명 가량의 피서객이 몰리면서 주차난을 겪고 있다.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갓길 주차로 교통 체증이 가중되고 있다.

/해남=이종행기자 golee@

외국 피서객 몰려온다

전남 해수욕장·섬 관광객 '북적'

완도 신지 해수욕장을 비롯한 전남지역 해수욕장들이 중국과 일본 등지의 외국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국제적인 피서지로 각광받고 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남도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관광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출시하면서, 아름다운 남도의 해변에서 여름휴가를 즐기려는 외국인들의 발길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주말인 지난 8일엔 중국인 단체관광객 3팀 180명이 완도 신지 해수욕장을 처음으로 방문했으며 중국과 일본, 미국 등 외국인 관광객 20개 팀 1천100여 명도 전남지역 섬 관광상품 예약을 끝마친 상태다.

이날 신지 해수욕장을 찾은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은 해수욕은 물론, 배를 타고 나가 그물을 던진 뒤 잡아당겨 고기를 잡는 전통 어업방식 '갓후리 체험'에 참가하는 등 물이 맑고 모래가 고운 남해안 최고의 명품 해수욕장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진후리안(35·중국 하남성)씨는 "아름답고 깨끗한 남도해변에서 해수욕도 하고 전통어업체험도 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내년에도 다시 오고 싶다"고 말했다.

자오안치(19·중국 하북성)씨도 "이번 여름방학을 이용해 전남해변으로 피서를 왔는데 모래가 하얀색으로 깨끗한 신지 해수욕장을 보니 정말 흥분되고 만족스럽다"며 "정말 다시 오고 싶은 곳"이라며 즐거워 했다.

신지 해수욕장은 '모래 우는 소리가 십리 밖까지 들린다'는 의미에서 '명사십리(明沙十里)'라고도 불리며, 길이 3.8㎞ 폭 150m에 이르는 은빛 백사장과 완만하고 넓고 울창한 송림지역으로 유명하다. 작년 126만 명의 관광객이 찾은 서남해안의 여름 최대 휴양지로, 올해는 지난 4일 현재 78만 명의 외지 관광객이 방문했다.

주동식 전남도 관광문화국장은 "섬과 바다, 갯벌 등 전남의 비교우위 관광자원을 적극 활용한 특화된 관광상품 개발·운영을 통해 여름 성수기 외국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사랑해요 전남" 피서철을 맞아 전남을 방문한 중국 청소년 수학여행단이 8일 완도 신지 명사십리해수욕장에서 해변 걷기를 하며 '사랑해요 전남'을 외치고 있다.

나우참 〈7877〉 김종두

비브리오 60대 여성 숨져

목포에서 산낙지를 사먹은 60대 여성이 비브리오패혈증으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9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1시30분께 대전시 중구 대사동 충남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 숨진 양모(여·68·공주시 신관동)씨의 혈액을 채취해 검사한 결과, 비브리오 패혈증 원인균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나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했다. /연합뉴스

"나 건달" 승려 협박 돈 뜯어

쌍나팔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승휘 판사는 9일 자신이 건달임을 강조하며 승려에게 거액의 돈을 뜯는 등 상습적으로 공갈과 사기 행각을 벌인 허모(52)씨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허씨는 지난해 3월 6일께 함평군 모 사찰 주지 A(52)씨에게 "내가 건달인데, 흩어진 조직을 관리해야 한다. (이 절의) 불법 행위에 대해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한 달 뒤 1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

○…허씨는 또 B(40)씨에게 접근해 "아파트 하도급 공사를 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600만원을 가로채는 등 공갈과 사기를 일삼다 지난해 3월 출소 후 1년 5개월 만에 또다시 감옥행.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농협 임원 선거 '진흙탕'

광주지검, 불·탈법 당선자 등 34명 적발

광주·전남지역 농협 임원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탈법을 일삼은 조합장 당선자 등 34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9일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성렬)에 따르면 올 들어 농협 조합장과 이사 등 임원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7명을 구속기소하고 2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같은 구속인원은 올해 전국의 농·수·축협 임원선거와 관련해 구속된 총 인원(22명)의 31.8%에 이른다. 검찰과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광주·전남의 농협 선거 풍토가 여전히 혼탁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단위농협별로는 영광군 G농협과 광주 B농협, 광주 S농협 등의 임원 선거가 불법 행위로 얼룩졌다. 영광 G농협 이사 당선자 장모(58)씨 등 4명은 지난 1월 실시된 이사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출마지역을 조정한 혐의로 모두 구속 기소됐다.

장씨 등은 두 지역의 농협 합병 이후 각각 이사 4명씩, 모두 8명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A지역에는 7명이, B지역엔 2명이 입후보하자 이사 후보자 2명에게 다른 지역 출마를 권유한 뒤 그 대가로 300만원씩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광주 B농협은 이사 당선자 주모(66)씨가 선거 두 달 전인 지난해 11월 A씨에게 현금 20만원을 건네는 등 조합원 6명에게 1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광주 S농협은 조합장 당선자 박모(54)씨가 지난해 11월 조합원 B씨에게 현금 20만원을 건네는 등 9차례에 걸쳐 현금 100만원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 의사를 밝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경호기자 choice@

사람 잡은 해파리

그물에 가득…어민 인명피해 속출

최근 전남지역 해안에서 해파리가 가득 찬 그물을 끌어올리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사고가 속출하고 있어 어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9일 목포해양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5시45분께 신안군 임자면에서 발생한 선원 사망사고는 그물을 연결하는 와이어가 그물 안에 가득 찬 해파리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끊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지난달에는 신안 해역에서 해파리가 가득 찬 어망을 걷어 올리다 줄이 끊어지면서 어민 A씨가 부상을 입는 등 해파리로 인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목포=대성수기자 dss@kwangju.co.kr